

올해 이것만큼은 해결하자



최 종 집 축산기획이사  
(주)마니커 전략기획실  
choicome@chollian.net

# 사육부문의 4대 해결 과제는?

##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의 차단 및 방역

2006년 육계산업의 가장 큰 뉴스는 11월 22일 발생한 HPAI가 아닌가 싶다.

HPAI는 발생한 농가와 위험지역 내 농가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 정부가 살처분 피해의 일부를 보상한다고 할지라도 살처분을 해야만 하는 사육농가의 경제적 보상과 심리적 위로는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아울러 HPAI의 더 큰 문제는 인체 전염 가능성과 이에 대한 언론의 과잉 보도로 인해 소비가 크게 감소되는 것이다.

2003년~2004년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 육용종계 농장에서 국내 첫 의심사례가 보고된 이후 2004년 3월 20일 양주 은현 산란계 농장까지 확인된 HPAI 양성 사례는 총 19건으로, 당시 인체감염

위험성에 대한 언론의 과잉 보도로 말미암아 닭고기 소비가 격감되어 업계를 대혼란에 빠지게 했다. 당시 소비는 27%가 감소되고 산지가격은 30%나 폭락하여 업계를 대공황사태에 이르게 한 바 있다.

물론 회복에서도 언론의 역할이 컸다. 2월 14일부터 어려운 업계를 돕기 위한 집중 홍보방송이 봇물을 이루면서 소비가 2월 18일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2월말에 생계 가격이 2월 14일 대비 1,100원/kg이나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2월 14일 생계가격 800원/kg ⇒ 2월 28일 생계가격 1,900원/kg, 계육협회 생계가격 중담 기준).

2006년도 상황을 살펴보면 11월 22일 발생 이후 12월 초순까지의 소비 감소는 30% 수준이었으며 육계가격 또한 11월 22일 1,000원/kg에서 700원/kg(중담 기준)으로 하락한 바 있다. 2007년 1월 26일 현재 가격은 1,200원 수준이며 2006년 1월 대비 약 15~20% 수준 소비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소비 수준의 회복은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2004년 당시 상황을 보아도 2004년 3월 20일까지 HPAI가 발생된 전례가 있어 앞으로도 질병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질병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 추가 발병을 없애야만 하겠다. 만약 질병이 계속 확산된다면 의외로 HPAI 상황은 업계 전체를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HPAI 인체감염 가

능성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4년~2005년 10월~11월 사이 국내에 발병 사례는 없었지만 동남아 및 유럽의 발생 사실 보도 및 인체 감염 가능성을 집중 보도한 것만으로도 국내 소비가 크게 위축된 적이 있었다.

## 2.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와 도체 품질의 개선 문제

관련 법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의 2, 시행령 제12조의 3, 시행규칙 제7조의 7

2007년 가장 큰 업계의 변화는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제도가 아닌가 싶다. 우선 1일 8만수 이상의 도계를 하고 있는 업체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나 향후 모든 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2000년 7월부터 실시되었던 도계장의 HACCP 인증제도처럼 국내 육계업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육계의 생산이 과거 양적 생산에서 품질 생산으로의 전환점에서 있는 것이다.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 시행은 소비자가 포장된 닭고기를 직접 선택 구매한다고 하는 점에서 도체 품질의 기준이 새롭게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육계 사육 부문에서 변화가 시급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도체품의 안전성 문제(항생제 잔류 문제) - HACCP 품질 요건

항생제 잔류 문제는 많은 사육농가가 그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의 농가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질병문제가 발생되면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품을 사용하는 풍토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로 국내 닭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품의 휴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 암피실린(Ampicillin) : 2일
- 염산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Chlortetracycline HCL) : 7일
-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 HCL) : 7일
- 다노푸록사신(Danofloxacin) : 5일
-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 5일
- 노푸록사신(Norfloxacin) : 5일
- 엔로푸록사신(Enrofloxacin) : 12일
-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 14일
- 황산카나마이신(Kanamycin sulfate) : 14일 (산란전 10일)
- 황산네오마이신(Neomycin sulfate) : 14일
- 설파디메톡신(Sulfadimethoxine) : 14일
- 설파메타진나트륨(Sulfamethazine sodium) : 10일
- 주석산타이로신(Tylosin tartrate) : 3일
- 암피실린+콜리스틴(Ampicillin+colistin) :

## 올해 이것만큼은 해결하자

- 사료 첨가 7일, 경구투여 6일(산란전 5일)
- 콜리스틴+스피라마이신  
(Colistin+spiramycin) : 15일(산란전 5일)
- 린코마이신+스펙티노마이신  
(Lincomycin+Spectinomycin) : 2일
- 염산옥시테트라+황산네오마이신  
(Oxytetracycline HCL+Neomycin sulfate)  
: 14일
- 페니실린G+황산스트렙토마이신  
(PenicillinG potassium+Streptomycin sulfate) : 12일
- 티아무린+설파메타진  
(Tiamulin+Sulfamethazine) : 10일

### 2) 도체품의 위생 문제(사료의 절식 문제) - HACCP 품질 요건

도체 품질의 위생 문제는 도체품의 세균수와 장내 미생물의 오염 문제이다.

HACCP 인증 제도 도입으로 도계장의 위생 수준은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아직도 농장에서 절식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출하 전 3~4시간 절식은 도체품 세균수 및 장내 미생물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임을 깨닫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사료의 낭비라는 점을 고려해 사료 절식 문제를 접근했으면 한다.

### 3) 도체의 외관 품질문제 - 닭고기 포장유통의 무화 제도에 따른 품질 요건



#### (1) 피부손상

농장의 사육 중 발생

- 궤양(Sores) : 구멍이 난 상처
- 가피(Scabs) : 딱지가 앉은 상처
- 창상(Scratches) : 발톱 상처, 찢어진 상처
- 둔부가피증(Scabby hip syndrome) : 임프라이스(Implies)라고도 불리는 둔부가피증은 깃털의 모낭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가피(딱지)의 검은 부스러기 부분들이 성장하여 다리의 표피에 커다란 각질을 형성하는 증상
- 접촉피부염(Contact dermatitis) : 접촉 피부염은 화상이나 궤양처럼 피하층에 수액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포성 병변. 수

종이라고도 표현되며 가슴과, 배에 주로 병변이 발생

- 괴저성 피부염(Gangrenous dermatitis)  
: 손상을 받은 닭의 피부가 괴저 현상을 보이는 피부염

- 가금 봉와직염(Avian cellulitis) : 손상을 받은 닭의 피부 아래에 생기는 감염증

(2) 멍, 울혈, 변색 - 상차 및 수송 중 발생  
날개, 다리, 복부에 발생하는 멍, 울혈, 변색

(3) 골절 및 탈골 - 상차 및 수송 중 발생  
날개, 다리의 골절 및 탈골

4) 닭고기 도체의 외관 품질 개선을 위해 사육 농가가 해야 할 일

(1) 사육밀도의 조정

농가의 급이, 급수, 가온, 환기 설비에 맞는 사육 밀도 조정

(2) 급이 급수의 중단 시 주의

특히 음수 백신 시 유의 요망 - 급수 제한 시간

(3) 닭이 놀랄 수 있는 상황 방지

외부 침입 동물, 관리자, 이상 기계음 등

(4) 조도 및 조명 기간

과도한 조명은 투쟁적으로 변화

(5) 사료 및 품종

고지방 사료 깃털 발생 불량 가능성, 품종 간 차이 가능성

(6) 계사 환경

온도, 습도, 소음, 환기, 암모니아 등

(7) 상차 시 취급 주의

창상, 멍, 골절, 탈골 방지

3. 축산업 등록제와 사육밀도 문제

관련 법률 : 축산법 제20조의 5, 시행규칙 제 25조의 2 제3호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등록제와 연관된 사육 밀도부문은 사육농가의 수입과 연관돼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특히 축산업 등록제를 진행하면서 신고된 사육면적이 이제는 과밀사육 단속의 족쇄로 작용될 듯하다.

1) 축산업 등록제에 따르는 닭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 농림부 고시

〈수수산정방법〉

계종	시설형태	수당면적	비고	
산란계	케이지	0.042m <sup>2</sup> /수		
	평사	0.11m <sup>2</sup> /수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m <sup>2</sup> /수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케이지	0.042m <sup>2</sup> /수	평당 78수	
	평사	무창	0.046m <sup>2</sup> /수	평당 71수
		개방	0.066m <sup>2</sup> /수	평당 50수

\* 토종닭은 산란계 평사사육 기준적용

# 올해 이것만큼은 해결하자

-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 :  
성계 1수 = 육성계 2수 = 병아리 4수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육계	3주령 미만	3~4주령 미만	4주령 이상
산란계·종계	3주령 미만	3~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2)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관련 닭 수당 가축 사육시설 소요면적 (사육밀도 20% 완화)

구분	등록제(안)		직불제(안)	
	개방	무창	개방	무창
육계	케이지	0.042m <sup>2</sup> /수	0.0504	
	평사	0.066m <sup>2</sup> /수	0.046m <sup>2</sup> /수	0.0792 0.0552
산란계	케이지	0.042m <sup>2</sup> /수	0.0504	
	케이지(육성)	0.025m <sup>2</sup> /수	0.030	
	평사	0.11m <sup>2</sup> /수	0.132	

3) 사육밀도 관련 사육능가가 해야 할 일

축산업 등록제의 사육밀도 또는 축산 직불제의 사육밀도 부문은 조금 더 연구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향후 친환경 축산이 전 세계의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밀 밀집 사육은 그 입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축산 분뇨처리 미흡,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이 환경오염 산업으로 인식되고, 악취발생 등으로 농장의 신설 및 증축 등이 지역에서 외면 받는 현실과 앞서가는 축산 선진



국의 개념인 동물복지까지 고려한다면 현재의 고밀도 밀집 사육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4.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무항생제 닭고기

관련법률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 제1항

과거 유기축산물만 규정되었던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개정,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인증이 법률로 규정되어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 연구에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한다.